

태광산업, 화장품·에너지 등 미래 먹거리에 1.5조 ‘올인’

투자계획 실행시 연내 1조 집행
애경산업 예비입찰 숏리스트 포함
자사주 전량 3186억 교환사채 발행
조달자금 사업구조 재편 투입키로

태광산업이 2026년까지 총 1조 5000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 화장품과 에너지, 부동산개발 사업에 진출한다. 주력 사업인 석유화학과 섬유 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함이다. 다만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정정명령을 내려 자금조달에 제동이 걸렸다.

태광산업은 화장품·에너지·부동산 개발 관련 기업의 인수와 설립을 위해 조 단위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내년까지 집행할 투자 규모는 현재 보유한 투자자용 자금을 크게 초과할 것”이라며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서는 ‘올인’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화문 태광그룹 흥국생명빌딩 사옥. /태광그룹

태광산업은 투자 계획을 예정대로 실행하면 연말까지 1조원 가량을 집행한다. 신규 진입을 모색하는 화장품·에너지·부동산개발 관련 기업 인수에 자금의 상당 부분을 투입할 방침이다. 실제 태광산업은 애경산업 인수 예비입찰에서 적격 인수 예비후보(숏리스트)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태광산업은 현재 유보금으로는 투자자금을 충당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섰다. 태광산업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회사가 보유한 현금성 자금은 1조9000억원 수준이지만 실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은 1조원 미만이다. 기존 석유화학 및 섬유 부문에 5000억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고, 업황 악화에 대비해 3.5개월치 예비운영자금 5600억원도 보유해야 한다.

석유화학 2공장과 저용점섬유(LMF) 공장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시설 철거와 인력 재배치에도 상당한 자금이 소요된다. 또 일부 나일론 생산공장과 중국 스판덱스 공장도 조만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해 추가 예비운영자금 확보가 필요하다.

앞서 태광산업은 지난달 27일 이사회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186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을 의결했다. 태광산업은 내달 교환사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자금을 사업구조 재편에 투입할 예정이다.

태광산업은 신규사업 진출을 위해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 사업 목적을 ▲화장품 제조·매매 ▲에너지 관련 사업 ▲부동산 개발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개발·운영 ▲리츠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등에 대한 투자 ▲블록체인 기반 금융연관 산업 등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태광산업의 교환사채 발행 계획에 대해 발행(처분)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누락돼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정명령을 내렸다고 공시했다. 2대 주주인 트러스트자산운용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 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트러스트 측은 “이사회가 발행 조건과 거래 상대방을 명확히 정하지 않은 채 의결을 강행해 상법 시행령 제2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당 순자산가치의 4분의 1 수준으로 대규모 자사주를 처분하는 것은 배임 소지가 있다”며 이사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금감원

카드 발급·ATM 사용 후견인 금융불편 개선

후견인도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험 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장을 제공하는 등 국내 체류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도 함께 개선된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두 가지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령화로 인해 성년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금융사들이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이나 ATM 사용을 제한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1883건에서 2023년 1만1907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어려울 때 진짜 실력 드러나... 힘 모으면 크게 도약”

삼성SDI 창립 55주년 기념식

최주선 대표이사

“현재 반성하되, 미래통찰 지혜 필요”

삼성SDI가 창립 55주년을 맞아 1일 경기도 용인 기흥 본사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이번 행사는 최주선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해 장기근속자, 우수 사원 등 주요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최 사장은 기념사에서 “어려울 때일수록 진짜 실력이 드러난다”며 “우리의 저력과 가능성을 믿고 힘을 모은다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배터리 시장의 불확실성과 대내외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등골이 오



1일 삼성SDI 기흥 본사에서 개최된 55주년 창립기념일 행사에서 최주선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왼쪽 위)과 주요 경영진, SDI인사 등 수상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삼성SDI

싹해질 때도 있다”고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그는 “시장은 끊임없이 변한다”며 “현재를 반성하되, 미래를 통찰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리면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 ▲제조 경쟁력 재건 ▲극판·조립·팩 기술 정상화 ▲전자재료 신사업의 성공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삼성SDI는 최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으며, 반도체·디스플레이용 전자재료 등 신사업 육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최 사장은 “여러분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가슴 벅찬 미래를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책임지고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취임 이후 첫 창립기념식에 나선 최사장은 임직원들에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전하며 조직의 결속을 당부했다. /이혜민 기자 hyem@

미국 車 수출 ↓... EU서 전기차 중심 호조

≫ 1면 ‘6월 수출 598억 달러...’서 계속

대미 수출은 감소했으나, 대 EU 수출이 전기차를 중심으로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중고차 수출(6.7억달러, +67.9%)도 크게 증가하며 역대 최초로 5개월 연속 60억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다만, 6월까지 누적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364억달러로 마이너스를 피하지 못했다. 대미 수출 감소와 미국 현지 전기차 생산 본격화 등에도 하이브리드차 수출 호실적이 감소 폭을 제한했다.

이외에도 바이오헬스 수출은 바이오 의약품을 중심으로 36.5% 증가한 16억 6000만달러로 6월 중 역대 최대였고, 선박 수출도 63.4% 증가한 25억달러를

기록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다만 6월 석유제품(-2.0%), 석유화학(-15.5%) 수출은 제품가격이 연동되는 유가 약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을 지속했다.

지역별로 보면, 9대 주요 지역 중 6월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7개 지역으로의 수출이 증가했다. 대미국 수출은(112.4억달러, -0.5%) 보험세, 대중국 수출(204.2억달러, -2.7%)은 소폭 감소세다. 대아세안 수출은 반도체·선박·철강제품을 중심으로 2.1% 증가한 97억6000만달러로 1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됐고, 대 EU 수출은 자동차·차부품, 선박,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하며 14.7% 증가한 58억달러를 기록, 4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민주당 일각 ‘3%룰’ 제외 상법개정 의견

≫ 1면 ‘3일 처리 vs 3% 룰...’서 계속

국민의힘이 수용하기 어려운 건 이른바 ‘3%룰’이다. 이 내용으로 실행될 경우 대주주의 영향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도 3%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넣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야4당과 노동·시민사회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3%룰 강화’ 등 실질적인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상법 개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3%룰’을 제외하고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사 총실행권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면 주주들

의 무분별한 손해배상·배임죄 소송과 외국계 헤지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 배임죄 개정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배임죄는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데, 기업 총수가 배임죄로 기소됐더라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로 결론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진수 법무부장관 대행(법무부 차관)에게 “미국 텔라웨어 주에서 소주주 친화적인 판결을 하니, 텔라웨어에 있던 기업들이 다 떠났다. 이를 ‘텔라웨어 엑시트’라더라”고 지적했다. /서예진 기자 syj@

단계별 영·중문 표준 안내장 마련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중문 페이지 신설하기로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업권과의 협의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권한이 확인된 후견인에 대해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후견인이 단순 입출금이나 계좌 조회, 이체 등을 위해 매번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외국인을 위한 보험 서비스도 강화된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24년 기준 265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보험 계약 체결 건수도 2021년 74만건에서 2024년 114만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보험 계약 과정에서 외국어 안내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해 부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9월까지 보험모집, 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등 단계별로 영문·중문 표준 안내장을 마련해 외국인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 안내장은 보험 계약 모집 시, 계약관리 안내 시, 사고보험금 접수 시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활용된다.

또 비대면 환경에서 외국인이 보험계약을 조회하거나 본인 인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보험협회의 ‘내보험찾아줌’ 홈페이지에 영문·중문 페이지를 신설하고 보험사 시스템의 영문 성명 입력 가능 글자 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대리하는 후견인의 금융거래 불편 해소와, 언어 장벽을 느끼는 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 제고가 동시에 필요하다”며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유관기관 및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정윤 기자 zelkova@